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 운전자가 이전에 어떤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보유했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현행법을 변경합니다.
- 보험회사가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이력에 비례하여 운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보험 비용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보험의 실효가 군 복무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실효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이 실효된 운전자가 보험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3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운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아마도 주정부의 보험료세 세입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자동차 보험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2011년도 캘리포니아 보험사들이 징수한 전체 보험료 중 약 210억 달러(40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보험 규정. 198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특정 유형의 보험에 대해 요율 변경 시, 요율 변경이 발효되기 전에 보험 커미셔너(Insurance Commissioner) 변경 내용을 검토 및 승인하도록 하는 발의안 제 103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발의안 제 103호 또한 다음과 같은 요율 결정 요인들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에 대한 요율 및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중요도 순으로, (1) 피보험자의 운전 안전 기록, (2) 피보험자의 매년 운전 거리, 그리고 (3) 운전 시작한 이래의 연수입니다.

보험 커미셔너는 자동차 요율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해 추가 요율 결정 요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목적을 위해 16가지 선택적 요율 요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계속 자사 보험을 유지하는

고객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서 자사로 바꾼 신규 가입 고객에게 이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세.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는 현재 주 법인소득세 대신 보험료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세 세액은 매년 자동차 보험 및 그 외 다른 보험에 대해 매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올린 보험료 수입 총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201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사들이 납부한 보험료세 세입은 약 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세입은 주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제안 사항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사에서 자사로 옮긴 신규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가입 유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입 유지는 보통 한 보험사가 중간에 변경 없이 계속 자동차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중간에 변동 기간이 있더라도 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변동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여전히 이 할인 혜택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지난 5년 사이 실효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고 또는 일시적 해고에 따른 고용 상실로 지난 5년 사이 실효 기간이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군복무로 인한 경우.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 부모의 자격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혜택은 비례적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할인은 직전 5년 사이 해당 고객의 보험 가입 연도 수(개월 수는 연도로 반올림)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본인이 이전 5년 기간 중 3년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 고객은 전체 가입 유지 할인 혜택 중 60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재정적 영향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들의 전체 자동차 보험료 수입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거두는 보험료세 수입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유지 할인 혜택을 도입할 경우, 할인 혜택 수혜 자격을 가진 고객이 지불하는 보험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분은 이러한 할인 혜택 수혜 자격이 없는 고객이 지불하는 추가 보험료로 벌충될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한 주 보험료세에 대한 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